

대불련 신행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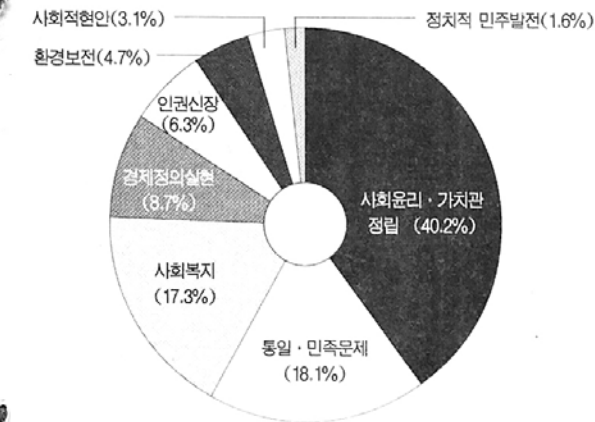
“교육프로 태부족” 56%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부진하다고 응답한 48.7% 중 51.0% 40.6%가 각각 회원들의 열의부족, 종단 지원부족을 이유로 지적했다.

지도법사에 대해서는 상담 및 생활지도(32.5%) 외에도 불교학술회의 운영에 대한 관심(26.2%) 근기에 맞는 법문(15.9%) 교리 및 수행지도(15.9%)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였다.

지회는 80%이상을 회비로 충당(56.1%)하거나 선배 및 불교단체·사회지원(33.1%)으로 운영하며, 신입회원은 커리큘럼(32.9%) 입문서는 25.0%, 31.1%에 달

상담·생활지도 관심 높아 수련대회 가장 기억 남아



<한국불교 사회참여 필요분야>

Table with 3 columns: Year, Event Name, and Details. It lists various Buddhist activities and conferences from 1963 to 1982, such as the 1963 8.26 National Buddhist Conference and the 1982 5.25 National Buddhist Conference.

자신이 다니는 전법도량에 대해 57.8%가 6~8점(10점만점)의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수행이 어려운 스님은 10~3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출가자들에게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한 조계종 개역 3년에 대해서도 47.9% 20.5%가 각각 달라진게 없다, 실재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76.7%가 만족했으며, 사회참여가 필요한 분야로는 사회윤리·가치관 정립(40.2%)과 통일·민족문제(18.1%) 사회복지(17.3%)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리정립에 불교 나서자

반면, 인권신장(6.3%) 환경보전(4.7%) 사회적연안(3.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표했다. 이는 인권신장 등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불교본연의 모습과 방법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또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불교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대중화(27.0%)와 시대적 덕목으로써의 생활화(25.2%)를 우선으로 꼽았다.

도필선 기자

설/문/문/항

- 1.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늘었습니까? (1)늘었다(9.2%) (2)안(21.7%) (3)변(10.9%) (4)안(9.9%) (5)안(3.3%) (6)안(45.4%)
17. 타교도의 개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있다(13.4%) (2)없다(80.7%)
18. 관공 호신불 또는 단주를 몸에 착용하고 계십니까? (1)예(58.1%) (2)아니오(30.4%)
19. 중언후 불교활동 계획은? (1)일단신도로서 참여(45.9%) (2)종교개혁으로 관여(11.3%) (3)신앙의 불자로 남(15.9%) (4)종교 또는 포교에 나서(6.3%) (5)불교를 하는 마음을 찾(3.8%) (6)모르(15.0%)
20. 대불련에 인위적이지 않은가? (1)불교사단인 인위적(21.4%) (2)심의를 불교사단이기 위해(22.7%) (3)주요 사단의 권(19.5%) (4)종교개혁을 위한(14.3%) (5)불교개혁을 위해(22.1%) (6)다(12.7%)
21. 법우들이 속한 지회 모임의 회원 참가자는? (1)10명 내외(32.1%) (2)20명 내외(34.8%) (3)30명 내외(11.5%) (4)40명 내외(4.9%) (5)50명 내외(4.5%) (6)50명 이상(12.8%)
22. 현재 지도법사의 견해(반쪽)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대 이상(40.0%) (2)보통(40.7%) (3)부족(19.5%) (4)지도법사가 없다(12.7%)
23. 지도법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는가? (1)법회 날짜와 시간을 지켜주었으면 한다(9.5%) (2)근거 및 법문을 해주었으면 한다(15.9%) (3)산단 등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32.5%) (4)교리 및 수행지도에 관심을 갖(15.9%) (5)불교개혁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22.1%) (6)다(2.2%)
24. 지회운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1)회비(56.1%) (2)회비와 다른 회비로 충당(36.1%) (3)회비와 다른 회비로 충당(4.1%) (4)회비와 다른 회비로 충당(3.8%) (5)회비와 다른 회비로 충당(2.8%) (6)회비와 다른 회비로 충당(2.8%)
25. 지회에서는 삼일절 및 추석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1)삼일절은 충성으로 교육(23.0%) (2)삼일절이 아닌 안(25.0%) (3)삼일절에 대한 교육(32.9%) (4)삼일절 교육이 없다(19.1%)
26. 기성회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십니까? (1)교리서 중심으로 교육(16.2%) (2)교리서 수시로 진행(22.3%) (3)커리큘럼에 따라 진행(26.4%) (4)특별한 교육이 없다(31.1%)
27. 대불련 활동 중 가장 흥미 있는 것은? (1)신도회(14.9%) (2)삼일절(14.9%) (3)산단(14.9%) (4)수행(29.9%) (5)기타(14.4%)
28. 대불련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1)지도법사의 부족(5.3%) (2)회비의 부족(21.3%) (3)회비의 부족(4.7%) (4)산단의 부족(30.7%) (5)회원의 열의 부족(26.0%) (6)포교(12.0%)
29. 대불련 활동을 타교도 대안(대안)과 비교하면? (1)대안(24.3%) (2)대안(24.3%) (3)대안(24.3%) (4)대안(24.3%) (5)대안(24.3%) (6)대안(24.3%)
30. 부진하다고 그 이유는? (1)회원의 열의 부족(51.0%) (2)종교개혁의 지원 부족(40.6%) (3)신부들의 유대 부족(7.3%)
31. 불교계 내에서 대불련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비중이 매우 높다(6.5%) (2)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31.2%) (3)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26.0%) (4)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16.9%) (5)비중이 없다(16.9%) (6)비중이 매우 낮다(18.8%)
32. 대불련이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불교개혁의 태동(33.8%) (2)신도지도 등 불교의 비(13.9%) (3)기독교에서 지식 불교로의 전환 등 불교의 이(36.8%) (4)기타(19.9%)
33. 대불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1)교리(17.8%) (2)수행(17.8%) (3)불교개혁의 태동(63.8%) (4)불교개혁을 통한 생활(13.8%) (5)기타(4.8%)
34. 선구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1)경제적 지원(16.4%) (2)신앙(25.0%) (3)종교개혁, 유대(55.3%) (4)기타(3.3%)
35. 한국불교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지회가 전법도량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점(8.9%) (2)4-5점(15.5%) (3)6-8점(57.8%) (4)9점 이상(19.8%)
36.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스님은 대략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0-30명(50.9%) (2)31-50명(24.5%) (3)51-70명(12.7%) (4)80명 이상(11.9%)
37. 비구니스님의 위상(신도)에 대한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정신(8.5%) (2)대(8.5%)
38. 조계종의 개역 3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성공(41.0%) (2)비교(17.8%) (3)보통(47.9%) (4)안(20.5%)
39. 한국불교의 사회참여를 전담하는 데는 누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종교개혁(11.0%) (2)종교개혁(11.0%) (3)종교개혁(11.0%) (4)종교개혁(11.0%) (5)종교개혁(11.0%) (6)종교개혁(11.0%)
40. 현재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에 만족하십니까? (1)매우 만족(1.0%) (2)만족(15.6%) (3)보통(26.8%) (4)불만(56.1%) (5)매우 불만(12.2%)
41. 불교개혁의 가운데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될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법우(5.2%) (2)대중(4.2%) (3)법우(5.2%) (4)대중(4.2%) (5)법우(5.2%) (6)대중(4.2%)
42. 한국불교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종교개혁의 승(20.8%) (2)종교개혁의 승(22.5%) (3)종교개혁의 승(9.8%) (4)종교개혁의 승(10.3%) (5)종교개혁의 승(14.2%) (6)종교개혁의 승(24.4%)
43.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하나만 꼽으시겠습니까? (1)대중(27.0%) (2)대중(27.0%) (3)대중(27.0%) (4)대중(27.0%) (5)대중(27.0%) (6)대중(27.0%)
44. 오늘 중 가장 자기기 어려운 것은? (1)법우(12.5%) (2)법우(12.5%) (3)법우(12.5%) (4)법우(12.5%) (5)법우(12.5%) (6)법우(12.5%)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Advertisement for '도선사' (Doseon Temple) with address in Seoul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남해보리암' (Namhae Boriam) with address in Gyeongnam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봉정암' (Bongjeongam) with address in Gangwon-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심원사' (Simwonsa) with address in Gangwon-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등명락가사' (Deungmyeongrakgasa) with address in Gangwon-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농촌한식' (Nongchon Hansik) with address in Gangwon-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울젠' (Uljeon) with address in Gangwon-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관음불교사' (Gwan-eum Buddhist Temple) with address in Gangwon-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신록사' (Shinroksa) with address in Gyeonggi-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낙산사' (Naksansa) with address in Gangwon-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불암사' (Bulamsa) with address in Gyeonggi-d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우주정사' (Ujujeongsa) with address in Gyeonggi-do and contact information.